

FAO 곡물시장뉴스



World Grain 곡물시장뉴스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유럽연합은 평균 이상의 곡물 수확을 예상

유럽 연합의 2014년 여름 단기 농업 전망에 따르면, 2년째로 유럽연합의 곡물 수확이 평균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된 2013/14년의 수치들이 평균 이상인 3.02억 톤의 곡물 수확량을 확신하고, 수출 레벨이 기록적인 4,200만 톤에 다다를 것을 뒷받침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인해, 이월 재고량은 제한되고 이용될 재고량 비율이 부분적으로 10%에서 12%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15년의 새로운 수확량은 2년째 평균 이상으로 3.03억 톤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 생산량은 5년 평균보다 5% 높으며 2012-13의 생산량보다 8% 높다. 이것은 밀 수출량 2900만 톤을 포함하며, 이는 평균보다 43% 높다.

연질밀이 유럽연합 최고 작물로 남으며 1.35억 톤의 최종 생산량을 기록했고, 이 뒤로 옥수수가 6,500만 톤 그리고 보리가 5,900만 톤을 기록했다. 듀럼밀은 780만 톤으로 2007년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곡물이 파종된 토지 평균은 지난해보다 약간 낮은 0.2%감소를 보였고, 이는 주로 연질밀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약간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호의적인 기후 조건으로 인해 산출량은 이전 해에 비해 8% 증가를 보였고, 특히 연질밀은 7.3%의 증가, 보리는 10%의 증가 그리고 옥수수는 11%의 증가를 보였다. 듀럼 밀 생산량의 감소는 주로 감소한 토지비율로 인한 것이며, 특히 프랑스에서 두드러졌다.

곡물 수출량은 기록적인 4,200만 톤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2,900만 톤은 연질밀이고 보리가 850만 톤을 차지한다. 이는 유럽연합의 전통적 선적 국가들과 한국 그리고 이란으로의 더 많은 선적 량을 초래한다. 프랑스와 독일을 뒤따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가 각각 제3 국가들로 밀을 수출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국가들이 되었다.

국내적으로 사료용 이용도가 지난해에 비해 약간 증가해 1% 증가를 보였고, 이는 사료용 밀과 옥수수의 낮은 가격과 마케팅 연도 하반기에 증가한 유제품의 수요가 뒷받침 했다.

최종 곡물 재고량은 470만 톤 증가해 3,2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여전히 5년 평균보다 24% 이하지만 이용될 재고량의 비율을 10.3%(2012 말)에서 12.0%으로 증가시킨다.

2013/14년의 지방종자 생산량 전망은 3,120만 톤으로 총합되었다. 이 수치는 낮았던 2012/13년 수확량 보다 12.7% 증가한 것이다. 특히 유채 씨는 기록적인 8.4%의 파종 토지 증가율을 기록하며 곡물 파종 토지의 감소를 벌충했고, 총 생산량이 2090만 톤에 다다랐다. 해바라기 생산량은 25% 증가하여, 900만 톤에 다다랐고, 이는 파종 토지의 2.5%증가와 22.3%의 산출량 개선으로 달성된 것이다.

총 단백질 작물 또한 토지 감소에도 불구하고 2,400만 톤으로 생산량 증가를 보였다. 새로운 유럽연합의 곡물 수확량에 대한 전망은 약 3.03억 톤의 생산량을 가리키며, 이는 2013/14년보다 약간 높고, 2년째로 평균보다 5.5%가 증가한 수치이다. 총 곡물 파종 토지는 거의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연합 농부들의 선호도가 연질밀과 옥수수의 토지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보리 파종 토지는 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듀럼밀의 부정적 유행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 OECD-FAO 농업 전망에서 곡물 가격 하락 예상

최근 주요 작물들의 가격 감소는 2008년 이전 기간의 수준 이상이지만 최근 최고 가격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되기 이전에, 앞으로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와 식량 농업 기구(FAO)가 생산하는 최근 농업 전망이 전했다.

농업 상품들에 대한 수요는 지난 십 년보다 느린 추세로 성장세를 누리며 안정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곡물은 여전히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의 중심에 서있지만, 수입이 늘어나고 도시화가 증가하며 세계 많은 곳들에서의 식단들이 더 많은 단백질, 지방 그리고 설탕을 포함한다.

OECD-FAO의 농업 중장기 전망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세계 인구 성장과 통합되어, 앞으로 다가오는 신년간에 걸쳐 상당한 생산량의 팽창을 필요로 할 것이라

고 전했다.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가 이끌어, 개발도상 지역들이 앞으로 십 년간 75%이상의 추가 농산물 산출량을 차지할 것이다.

이 보고서를 로마에서 발표하며 OECD의 사무총장 Angel Gurría는 “이례적이 지 않게 높은 가격들 이후 농산물 시장들은 더욱 안정된 환경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이것은 정부들이 무역 조치 이용의 제한 노력을 보여 도움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무역, 생산량 그리고 빈곤을 없애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정부들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해 사회적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농부들이 위험요소를 관리하도록 도울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하고 농업 생산성에 투자해야 한다.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한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문제로 남는다.”

FAO 단체인 Jose Graziano da Silva는 “올해의 전망의 메시지는 더욱 긍정적이다. 농부들은 높은 가격들에 재빨리 반응했고 그들의 생산량을 증가시켜, 이제 우리는 더욱 많은 재고량을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는 곡물과 관련된 가격들은 앞으로 최소한 2년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수요의 증가를 대면하는 육류와 어류에 대한 경우는 다르다. 특히 개발 도상국들에서의 농업 부문의 좋은 실적이 기아와 빈곤의 박멸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초점을 맞춘 인도의 경우, 이 전망 보고서는 유제품 생산과 수경재배와 같은 부가가치 부문들이 이끄는 지속되는 식량 생산과 소비 성장을 전망했다. 생산 기술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여러 부문들 보조들과 함께 지난 십 년간의 거센 산출량 팽창에 기여했다고 이 보고서는 전하며, 자원에 대한 압력이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해들에 걸쳐 생산량 증가 비율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채식주의자로 지속되겠지만, 인도의 식단은 다양화 될 것이다. 곡물, 우유 그리고 유제품, 생선 류, 콩 종류, 과일 그리고 채소의 소비가 증가하며, 영양소들의 섭취가 개선될 것이다. 인도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식량 부족 인구 보유 국가이다.

이 농업 전망은 세계적 곡물 생산량이 2011-13 기간에 비해 2023년까지 15%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가장 빠른 생산량 증가는 지방종자에서 일어날 것으로,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26% 증가할 것이다. 조립 곡물과 지방종자 생산량의 팽창은 특히 선진국가들에서의 바이오 연료의 높은 수요와 개발 도상 지역들에서의 사료 필요 조건 증가로 인해 초래될 것이다.

식용 작물의 팽창은 앞으로 다가오는 십 년간 부진해, 밀 산출량 증가가 약 12%

그리고 쌀은 14%으로 이전 십 년의 성장 비율보다 매우 낮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설탕 생산량은 앞으로 다가오는 십 년간 20% 증가하며, 주로 개발 도상국들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 전망 보고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십 년간 넓은 범위의 상품들에 대한 개선을 전망했다:

곡물은 주요 곡물들의 세계적 가격들은 전망 기간 초에 완화되어, 세계 무역을 북돋을 것이다. 아시아의 쌀 재고량이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에 다다르며 재고량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지류의 경우 파종된 토지의 국제적 비율은 식물성 기름의 증가하는 수요가 가격을 상승시키며 지난 몇 년간의 비율에 비해 느리지만 증가를 지속 할 것이다.

설탕은 2013년 말의 약화 이후, 거센 세계적 수요로 인해 가격들은 회복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우세한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에서의 수출은 에탄올 시장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바이오 연료는 설탕을 원료로 한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로 인해 바이오 연료의 소비와 생산 수준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탄올 가격 증가는 원유 증가를 따를 것이고, 바이오 디젤은 식물성 기름 가격의 형태를 더욱 가깝게 뒤따를 것이다.

■ 미국의 2014/15년 밀 이월 재고량 8,600만 부셸 증가

미 농무부는 이들의 7월 11개국 농업 공급량과 수요 전망에서 미국 내 2015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이월 재고 밀의 양을 6.6억 부셸로 예상했고, 이는 6월의 전망보다 8600만 부셸 또는 15% 증가한 것이며, 2014년 6월 1일의 5.9억 부셸에서 7000만 부셸 또는 12% 증가한 것이다.

2015년 미국 이월 밀 재고량은 업계가 예상한 평균인 5.85억 부셸 보다 매우 높다. 2014년의 총 밀 생산량은 19.92억 부셸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6월 예상한 19.41억 부셸과 2013년의 12.3억 부셸과 비교할 수 있다. 밀 수입은 1.6억 부셸로 예상되며, 이는 6월의 전망과 같고 작년의 1.68억 부셸보다 800만 부셸 감소한 것이다. 총 밀 공급량은 27.41억 부셸로 전망되며, 이는 6월의 전망보다 4,600만 부셸 증가했지만 작년의 30.16억 부셸에서 2.75억 부셸 또는 9% 감소한 것이다.

2014/15년의 총 밀수요량은 20.81억 부셸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6월보다 4,000만 부셸 감소 한 것이고 2013/14년의 24.26억 부셸과 비교할 수 있다. 밀 수출량

은 9억 부셸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6월의 9.25억 부셸에서 2,500만 부셸 감소한 것이며 2013/14년의 11.82억 부셸에서 2.82억 부셸 감소한 것이다.

건질 적색 겨울 밀의 2015년 6월1일 이월 재고량은 1.85억 부셸로 전망되었고 이는 2014년의 2.35억 부셸에서 감소한 것이다. 연질 적색 겨울 밀의 이월 재고량은 1.98억 부셸로 전망되며, 이는 올해의 1.14억 부셸에서 증가한 것이다. 건질 적색 봄 밀의 이월 재고량은 2014년보다 2,200만 부셸 증가한 1.91억 부셸로 전망된다. 듀럼 밀 이월 재고량은 3,300만 부셸로 전망되었으며, 2014년 보다 1,100만 부셸 증가하였다.

미국의 2015년 9월 1일 옥수수 이월 재고량은 18.01억 부셸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6월보다 7,500만 부셸 증가한 것이며, 2014년 9월 1일 이월 재고량으로 전망된 12.46억 부셸 보다 5.55억 부셸 또는 45% 증가한 것이다. 미 농무부의 2015년 전망은 업계 평균 전망이었던 17.73억부셸 보다 높았으며, 2014년의 수량은 업계 평균인 12.25억 부셸 보다 높았다.

2015년 9월 1일 미국 대두 이월 재고량은 4.15억 부셸로 전망되었으며, 6월에 전망된 3.25억 부셸보다 9,000만 부셸 또는 28% 증가한 것이며, 2014년 9월1일 이월 재고량을 위해 전망된 1.4억 부셸보다 2.75억 부셸 또는 196% 증가한 것이다. 2015년 미 농무부의 전망은 거의 4.08억 부셸이었던 업계 평균 전망보다 높았으며, 2014년의 재고량은 평균 전망이었던 1.3억 부셸보다 높았다.

미 농무부는 2014/15년 세계 연말 밀 재고량을 1억 8,954만 톤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6월에 전망했던 1억 8,861만 톤과 2013/14년을 위해 전망되었던 1억 8,429만 톤과 비교할 수 있다.

2014/15년의 세계 밀 생산량은 7억 517만 톤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6월의 7억 162만 톤과 2013/14의 7억1,420만 톤과 비교할 수 있다. 소비량은 6억 9,962만 톤으로 6월의 6억 9,906만 톤과 이전 연도의 7억 552만 톤과 비교할 수 있다.

2014/15의 세계 연말 옥수수 재고량은 1억 8,805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6월에 전망된 1억 8,265억 톤과 2013/14년의 1억 7,342만 톤과 비교할 수 있다.

■ 무역 제재가 러시아산 밀의 범람을 초래할 수도

러시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세계적 무역 제재가 세계 시장으로 밀의 범람을 초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미국과 함께 호주의 가장 큰 곡물 수출 경쟁

국들이다. 시장 분석가들은 올해 러시아산 밀 산출량이 5,000만 톤이 될 것이며, 이 중 2,000만 톤은 수출용이라고 예상했다.

말레이시아 비행기의 추락 이후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더욱 엄격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현재, 곡물의 수확은 진행되고 있다.

시드니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Mark Melatos는 러시아 밀 수출가들이 만약 제재들이 그들의 수출을 제한 시킬 것을 두려워한다면 이전에 그들의 상품으로 시장이 범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써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여름 작물 량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많은 곡물들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량을 감소하려고 할 수도 있으며, 특히 그들이 생각하는 더 큰 무역 제재들이 가해지기 전에 판매하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적으로 가격들을 떨어뜨릴 수 있다.”

제재들은 일반적으로 두 개 이상의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Melatos박사는 제재는 주로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 두 국가들 간에 무역 장애로써 또는 경제적 거래의 제한.

그는 미국이 말레이시아 비행기 추락 단 몇 일전 크렘린, 은행들 그리고 사업체들에 친밀한 관계를 갖는 러시아 개인들에게 제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Melatos박사는 “러시아 편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는 뻔하다. 그들의 무역, 또는 만약 경제적 제재들의 경우 그들의 사업체들과 은행들이 지불하는 값은 매우 크며 그들이 세계적인 범위로 거래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부과하는 국가들이 지불하는 값은 여러 방면에서 나온다. 첫째로, 만약 누군가가 러시아가 판매하는 수출품을 구매한다면 그 나라들은 더 이상 수출품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 그들이 러시아산 가스를 구매하거나 러시아산 밀을 구매한다면, 그들은 대체 공급 상품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그들이 이 상품들을 러시아로부터 구매했다고 추정한다면, 그들은 이제 그 상품들을 아마도 더 비싸게 파는 공급원으로부터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값비싼 가격을 대면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Melatos박사는 더욱 엄격한 제재들이 가스와 금융적 거래를 가장 크게 영향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제재들이 유럽, 미국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 완벽한 무역 통상 금지령을 가한다면 밀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제재가 밀의 무역을 막는다면, 시장에 밀 공급량이 낮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Melatos박사는 말했다.

“이것은 호주와 다른 큰 무역 수출국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다. 그들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성장하고 그들은 더욱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그들의 곡물 산출량 중 절반 정도를 북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그리고 동남 아시아로 수출한다. 호주는 2013년에 약 2,700만 톤의 밀을 생산하였고 2014년에는 약 2,500만 톤을 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2013년 밀 산출량은 약 5,000만 톤이었고, 이들은 2,000만 톤을 수출했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5번째로 큰 밀 수출국이다.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지역은 약 600만 톤의 곡물을 매년 수출하고, 이는 이 나라의 총 곡물 수출량 중 약 절반이다.

올해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기 위해 싸웠던 크림반도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 중 약 5%를 수출했다. 5월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이 오데사 지역의 폭동으로 이끌어 40명 이상의 사망이 초래되었다. 이 폭동들은 이 지역들이 그들의 항구 출입과 곡물 수출의 제한이 일어날수 있다는 두려움을 초래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은 가격 폭등을 유발해, 밀은 1톤당 약 300달러에 판매되었다. “우리는 이 지정학 요인을 갖고 있었지만, 미국산 겨울 작물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가뭄이 든 남부 평원 지역에서 실제로 얼마의 밀이 생산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다.”고 Profarmer의 상품 분석가인 Hanna Janson이 말했다.

“이러한 혼란이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번 시즌에 세계적으로 충분한 밀이 실제로 생산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혼동을 가져왔다.”

이후로 한달 후, 밀은 1톤당 약 220달러로 거래되었으며, 말레이시아 비행기의 추락은 단 5달러/톤의 급등만을 초래했다.

이러한 증가는 바로 다음날 하락하였고, 그 날이 후 가격은 비교적으로 변함없었다. 국가들은 그들이 계속 러시아산 곡물을 이용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지속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3월의 급등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분쟁이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이후 잠시 시장은 겁먹었지만, 이들은 이에 대해 숙고하였고 제재가 사실상 무엇

을 뜻 하는 지와 이들이 식품 수출에 영향을 끼칠 것 인지 아닌지에 대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Janson씨가 말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우리는 무역 활동들이 다시 회복되어 근본적인 요인들 바탕으로 거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Janson씨는 통상 금지령 또는 러시아 내의 정치적 폭동이 일어나야 시장들이 이 지역에서의 곡물 구매를 멈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러시아 전체적으로 수확이 계속되며, 산출량 전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낮은 품질이 프랑스산 밀을 사료 시장으로 내몰다

낮은 품질의 프랑스산 밀 작물이 “상당한” 수량이 사료용으로 수출되며, 이에 대한 결과로 이외의 유럽 국가들이 이 부문에서 강한 경쟁이 있을 것이란 생각에 긴장을 높이고 있다.

“프랑스산 밀 작물에 완전한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주요 유럽 상품시장의 거래가가 말했다.

“들판에서 일부 작물이 땅에 눕고 최악 한다는 뉴스 이후 우리는 상당한 양의 프랑스산 사료용 밀이 수출 시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주요 세계적 브로커 업체의 한 분석가가 Agrimoney.com에 관측을 확인해주었다.

“확실히 일어나는 일이다. 프랑스 시장은 판매를 원한다.”라고 그 분석가는 말했다고, 프랑스 곡물 부문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 “협동조합으로 인한 판매”가 월요일의 프랑스 선물 시장의 급격한 하락에 부분 기여했다.

프랑스산 사료용 밀은 톤당 4유로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런던에 사료용 선물이 거래되고 습한 기후로 인해 가축에 할당되는 곡물의 공급에 더욱 자연스러운 이웃 국가인 영국보다 낫다.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제분용 밀의 제공하지만, 수확 기간의 비가 최악과 단백질 함유량을 감소시켜 사료용에 더 알맞게 한다.

곡물을 사료 공급량으로 판매하려는 생산자들의 열의가 유럽 산 작물의 품질 저하의 조짐 중에 하나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 대량 생산될 것으로 보이나, 제분용에 알맞은 수량이 대폭 감소될 것이다.

“수확이 유럽을 통해 북쪽으로 진행되자 좋은 산출량의 그림이 그려지나 품질의 문제가 있다.” 유럽 상품 거래소가 말했다.

한 영국 거래자는 Agrimoney.com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에 사료용 밀의

부족은 없어 보이고, 이는 옥수수 작물들에 손을 대기도 이전이며, 그리고 대량의 미국산 옥수수 또한 준비 중이다.

“앞으로 가격을 상향하게 해줄 부족 현상을 보려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기왕에 최악의 상품들을 지금 판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야 한다.”

유럽 중부의 밀 품질은 비교적 높다고 이 브로커 업체의 분석가는 말하며, 독일이 유명한 경질 밀 공급량이 좋은 징조를 보이며, 체코 공화국 또한 일부 괜찮은 수확 결과로 15% 또는 이상의 단백질질을 포함한다. 그러나 더욱 동부 지역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헝가리의 문제들은 이미 INTL FCStone의 해설자로부터 미 농무 성까지 잘 보고되어, 상인들이 수출 주문들을 맞추기 위해 좋은 품질의 공급량을 찾는 것을 복돋고 있다.

루마니아는 이번 달 초, 세계 최고 밀 수입자인 이집트의 곡물 당국인 GASC에 의해 두 개의 유명한 입찰 건들을 낙찰 받았다. 그 동안 유럽 서부의 프랑스 북동쪽에서는 파리에서 독일 국경까지의 들판에서 자라는 밀들의 30% 발아율이 보고되었다.

“이제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가격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 하는가 이다,”라고 이 분석가는 말하며, 공급에 대한 압박에서 품질 할증료에 대한 지원을 예측하나, 이미 하락한 정도를 보았을 때 사료용 밀에도 또한 적용 될 것이다.

유럽의 옥수수 선물을 특히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이는 사료용 밀에 대한 경쟁 증가 때문이 아니라, 수확 가능성의 증가와 아직 성장기에 있는 가을 수확 작물들의 품질을 더욱 악화 시키기 때문이다.

11월의 옥수수 선물 가는 화요일에 파리에서 0.8% 하락한 1톤당 158.50유로에 거래되었으며, 이는 지난 한 달간 10.1% 하락했고 이는 11월 6.0% 하락한 제분 밀 선물 가졌던 1톤당 177.00유로와 비교할 수 있다.

■ 이집트 밀 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다

경작 가능한 토지와 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밀 산출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이집트는 수입 비용을 줄이고 식량 보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의 곡물 공급 망의 저장고와 물류 연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집트의 연간 밀 소비량은 1,500만 톤에서 2,000만 톤이며, 정확한 수치는 재배자들이 그들의 수확량 절반을 개인용 소비 용도와 다가오는 시즌의 파종을 위

한 씨앗 재고량을 위해 출하는 억제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총 소비량 중, 이집트는 주기적으로 1,000만 톤 또는 이상의 밀을 연간 세계 시장에서 수입해, 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큰 곡물 수입국으로 만든다.

이러한 수입량은 이집트의 외화 보유고에 상당한 소모를 부과한다. 정부가 연간 식량 수입에 지출하는 46억 달러의 상당량이 곡물 구입에 이용된다. 밀은 연료 가격 보고 이후 가장 큰 지출 단일 보조금을 대표하고, 이것은 7월초 예상치 못하게 삭감되어 자동차 연료의 가격과 천연 가스 가격을 70% 이상 증가시켰고 식품 가격을 20% 이상 증가 시켰다고 경제학자들은 밝혔다.

이 정부는 수입품에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더 큰 국내 생산량을 격려하고 있지만, 이 농업 부문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되어있다.

“농부들은 기후, 시장 가격, 농업 투입 물 가격, 노동비용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대면한다,”라고 영농사업 그룹인 Syngenta의 이집트 지사 대표, Nasser Abu alrous가 OBG에게 말했다. “생산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소득이 높은 농사법을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기술을 도입하고 최고의 농사법을 도입해 산출량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라고 그는 더했다.

밀 경작을 위해 알맞은 경작가능 토지들 대부분은 이미 일구어졌고, 거주지와 산업 지 확장이 이용 가능한 토지에 추가 압력을 가하며, 부족한 수자원, 뺏어가는 도시들의 들판 비율 차지가 증가하고 있다.

생산량 용량 제한을 완충하기 위해 이집트는 각 수확의 최대량이 제분소에 안전하고 좋은 상태로 도착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화시킨다. 저장과 운반 도중 초래되는 손상물의 추산은 연간 100~160만 톤으로 5억 달러까지의 가치가 있는 손해이다. 국가 곳곳의 저장고 망을 개선시키고 물류 서비스들에 개선을 계획하면 이러한 손해의 많은 량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5월에는 합산한 용량이 45,000톤인 9개의 저장고들이 항구 도시인 Alexandria에 개관되었고, 각각 5,000톤 용량의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18개의 추가 저장고들이 내년 6월에 완공 될 것이다.

이 저장고들은 작년 말에 발표된 식량 안전 보장을 보강하고 손상을 줄이기 위해 이 국가의 곡물 저장 용량을 300만 톤에서 450만 톤으로 증가 시키기 위한 더 큰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의해 지지 받고 있고, 이들은 합산 용량의 150만 톤인 25개 저장고들의 건설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Amiriya의 북부와 Damietta

지역에 건축될 이들 저장고들의 첫 건설을 위한 계약서들은 5월 말에 수여되었다.

이집트의 저장고들은 이미 올해의 수확물로 채워지고 있다. 정부 곡물 기관들은 이번 시즌에 목표한 구매량을 거의 충족 시켰고, 이들은 올해 초 그들의 총 수확량의 약 절반으로 예상되는 국내산 밀을 440만 톤까지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예상되는 수요량의 나머지는 다시 한번 수입을 통해 충족될 것이다. 2013년에 이집트는 외화 보유 부족과 약화된 환율이 구매력에 영향을 끼쳐 수입을 감소시키며 세계 곡물 시장에서 낮은 프로필을 유지했다. 올해에는 더욱 안정적인 정국과 세계적 지원이 시장으로의 귀환을 북돋았다.

가장 최근에는 곡물 수입을 책임지는 정부 기관인 the General Authority of Supply Commodities(GASC)가 5월에 우크라이나와 상당한 크기의 밀 구매 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하며, 6만 톤이 6월 말 열흘간 선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구매는 4월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루마니아로부터 계약한 23만 톤에 추가로 구매된 것이다.

이집트는 또한 작년의 수분 함유량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어, 올해 이들의 수입 망을 넓힐 수 있다. 이집트는 수입 곡물의 수분 함량을 13%으로 제한해, 이전에는 이 국가의 선두 밀 공급원이었던 프랑스를 제외한 모두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약 13.5%의 수분 함량으로 인해 프랑스 산 밀은 2013년의 엄격한 조건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만약 이집트의 평균 100만 톤의 밀 수입량의 약 절반을 책임지는 GASC가 이들의 기준을 완화 시킨다면, 이것은 더 많은 수입 기회를 제공하고 이집트의 구매 프로그램의 기본을 넓힐 수 있다.

■ 미국 옥수수 가격 하락으로 농부들 자금난에 직면

무너지는 옥수수 가격들이 많은 미국 농부들이 수 년 만에 처음으로 고난을 겪을 것이며 농업경제가 십 년 만에 첫 슬럼프를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퍼뜨리고 있다. 옥수수 가격들은 거의 완벽한 기후가 중서부가 2년 연속 풍년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을 북돋아, 지난 3개월 간 거의 30% 하락해 201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다. 다른 작물들의 가격들 또한 급격히 하락하였고, 대두는 거의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밀은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가격을 하락시키는 과잉 수량의 옥수수는 정육업자, 가축 업 농부들 그리고 에탄올 생산자들과 같은 동물 사료 또는 이외의 용도를 위해 곡물에 의존하는 업체

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낮은 세계적 곡물 가격 또한 소비자들을 돕고 있으며, 특히 빵 또는 이외의 주식들이 지출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들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가 발행하는 월간 식량 가격 지수는 6월에 3개월 째 1월 이래로 가장 낮게 하락했고, 이는 대부분 곡물과 식물성 기름의 하락 때문이다.

낮은 상품 가격들은 미국 식료품점의 시리얼, 쿠키 그리고 곡물과 대두를 포함하는 상품들의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일부 가공 식품 업체들 또한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하지만 옥수수 가격의 하락은 옥수수가 미국의 가장 큰 작물이고 35만 개 농장들에서 재배되며 작년의 농부들의 수익 중 약 600억 달러를 산출하기 때문에 미국 옥수수 지역의 소득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예상된다.

현재는 옥수수는 기록적으로 높았던 2012년 가격에서 57% 하락해, 일반적으로 농부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필요한 부셸 당 4달러의 한계 밑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것은 2006년 이래로 처음으로 많은 농부들이 그들의 재배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농업 경제학자들은 말했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중서부에서는 완연하다. 일부 지역들의 농업토지 가치는 수년 간 지속된 호황 이후 하락하기 시작했고, 농장 시설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농장 시설 판매업체인 Deere&Co.는 이들의 5월 2분기 수익 보고에서 9.5% 하락을 전하며, 올해 미국 내 농장과 조경 시설들의 판매는 5%에서 10%사이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농부들이 지출을 감소하면서 트랙터, 씨앗 그리고 이외의 농업 물자들의 판매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돈이 사라져버렸다.”라고 일리노이주에서 3,000에이커 농사를 짓는 Matt Bennett이 말했다. “농부들에게만 어려움이 닥친 것이 아니라 헛간을 짓는 이들이 계도” 그리고 “트럭을 판매하는 이들에게도 어려울 것이다.”

39세인 Bennett씨는 그가 이미 예상했던 수확물의 절반 정도를 부셸당 5달러에 판매했기 때문에, 올해 이익을 남길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마진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2015년은 더욱 힘들어 질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목요일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9월 배달을 위한 옥수수의 front-month contract(선물시장에서 가장 단기간 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계약한 날 짜에서 만료 날 짜가 가장 가까운 계약)이 1센트 또는 0.3% 하락해 부셸당 3.615 달러에 거래되었다.

농업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가는 동안, 경제학자들과 농업 금융업계는 농부들이 비교적 낮은 채무 수준을 갖고 있고 최근 호황 기간 동안 쌓여진 현금 보유액이 있기 때문에 1980년대의 농업 위기처럼 심각한 쇼크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농무성은 농장 자산에 비교한 경영 채무의 수준 전망은 올해 10.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이는 1954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옥수수과 대두 가격들은 만약 건조한 기후가 재배 기간 말에 증서부를 덮친다면 다시 반동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하지만 만약 호의적인 기후가 지속된다면, 옥수수 선물은 부셸 당 3.2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미니아폴리스에 소재한 Northstar Commodity 브로커사의 분석가 Mark Schultz가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 와 내년까지 부진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미 농무성은 지난 2월 미국 농부의 순 소득이 올해 27% 감소해 958억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고,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다. 그 이후 재배 환경이 뛰어났기 때문에 일부 경제학자들과 금융업계는 소득 하락이 더욱 급격하고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농업 소득은 마지막으로 2005년과 2006년 연속으로 떨어졌다.

심각한 가뭄 이후 2년 만에 미국 옥수수의 풍부한 공급이 이루어져 가격을 부셸 당 8.31달러 이상까지 끌어올렸다. 작년의 40% 하락 이전에 에탄올 업계와 중국과 같은 해외 시장의 성장하는 수요로 인해 옥수수 가격은 이전 3년간 부셸당 6달러 이상을 맴돌았다. 미국 농업 소득은 작년에 높게 지속되어 1조 3,050억 달러를 달성했고, 이는 1973년 이후로 조정 인플레이션 바탕 중 가장 높았다.

미 농무성은 올해의 옥수수 수확량을 138.6억 부셸로 예상하며, 작년의 기록인 139.3억보다 약간 낮다.

트랙터, 콤파인, 토지, 비료 그리고 씨앗의 가격들 또한 대부분 작물의 가격들과 최근 증가했기 때문에, 옥수수 가격이 부셸 당 4달러 이하로 떨어질 때 많은 옥수수 재배자들이 손해를 대면한다.

“우리가 몇 년 전 겪었던 상황과 매우 다르다,”라고 미주리 대학의 식량 농업 정책 연구원의 책임자 Patrick Westoff가 말했다. “우리는 지금 순 수익을 반으로 자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금융업계는 재배 기간 이후 농업 용자들을 검토하며 조심스럽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경작을 위해 농경지를 임대하는 농부들은 미국 농경지의 약 38%를 차지

하며, 이들은 토지를 소유하는 이들보다 지출이 더 높기 때문에 낮은 가격들로 인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일리노이주립 대학의 농업경제학자인 Gary Schnitkey가 말했다.

39세인 아이오아주 농부인 Doug Adams는 그와 그의 사업 파트너가 그들이 작년 경영에 추가시킨 약 400에이커의 대한 임대료를 재협상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